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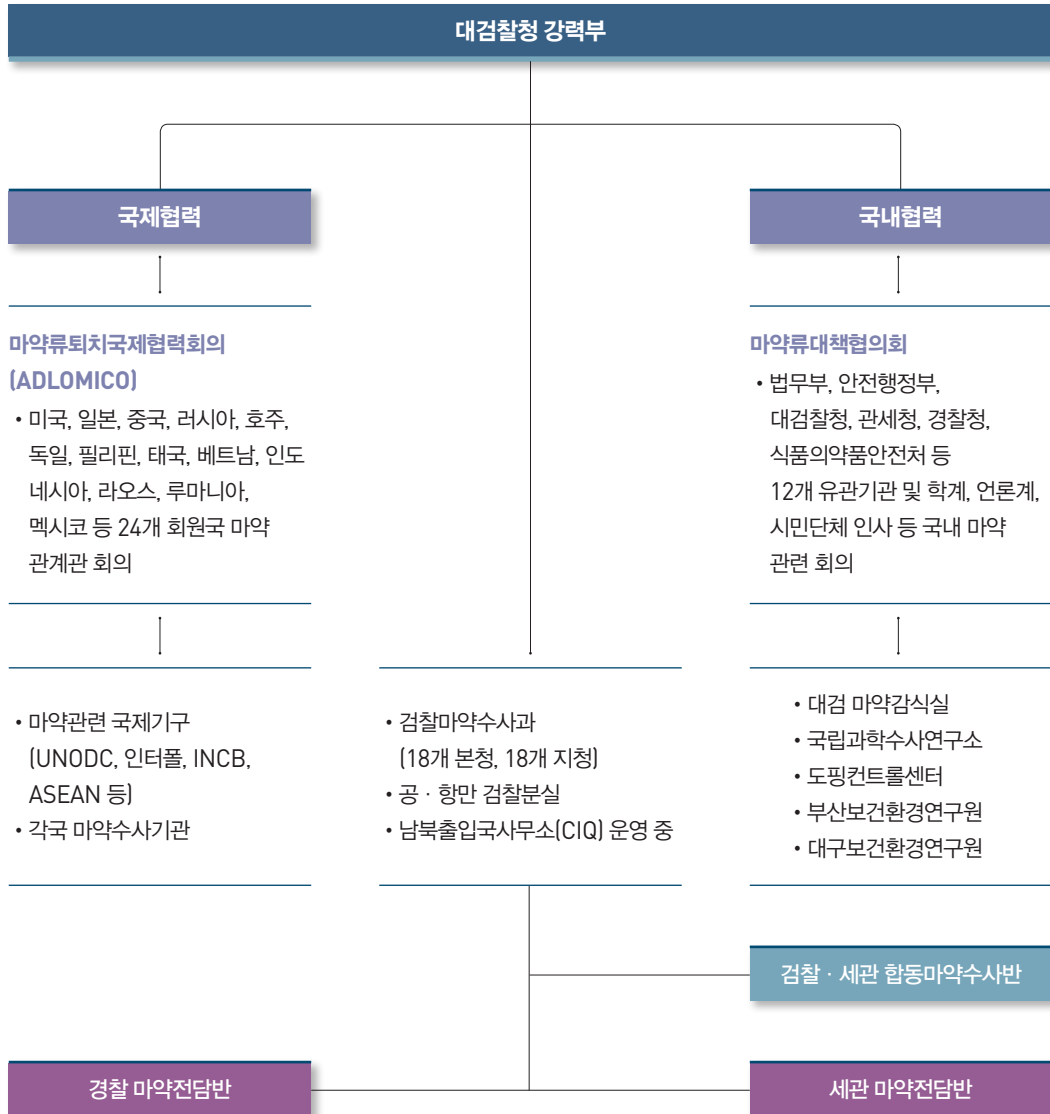
부록 I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제



1. 국내 마약류 단속체제

국내 마약류 단속체제도



2. 중국 마약류 단속체계

가. 국가금독위원회(國家禁毒委員會 : National Narcotics Control Commission)

구성

- ▶ 위원장은公安부장이 겸임
- ▶ 부위원장은 국무원 부사무총장, 公安부 부부장, 중앙선전부 부부장, 위생부 부부장, 해관총서 부세관장
- ▶ 위원은 사법부, 검찰원 등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관료 31명(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교육부 부부장, 안전부 부부장, 민정부 부부장 등)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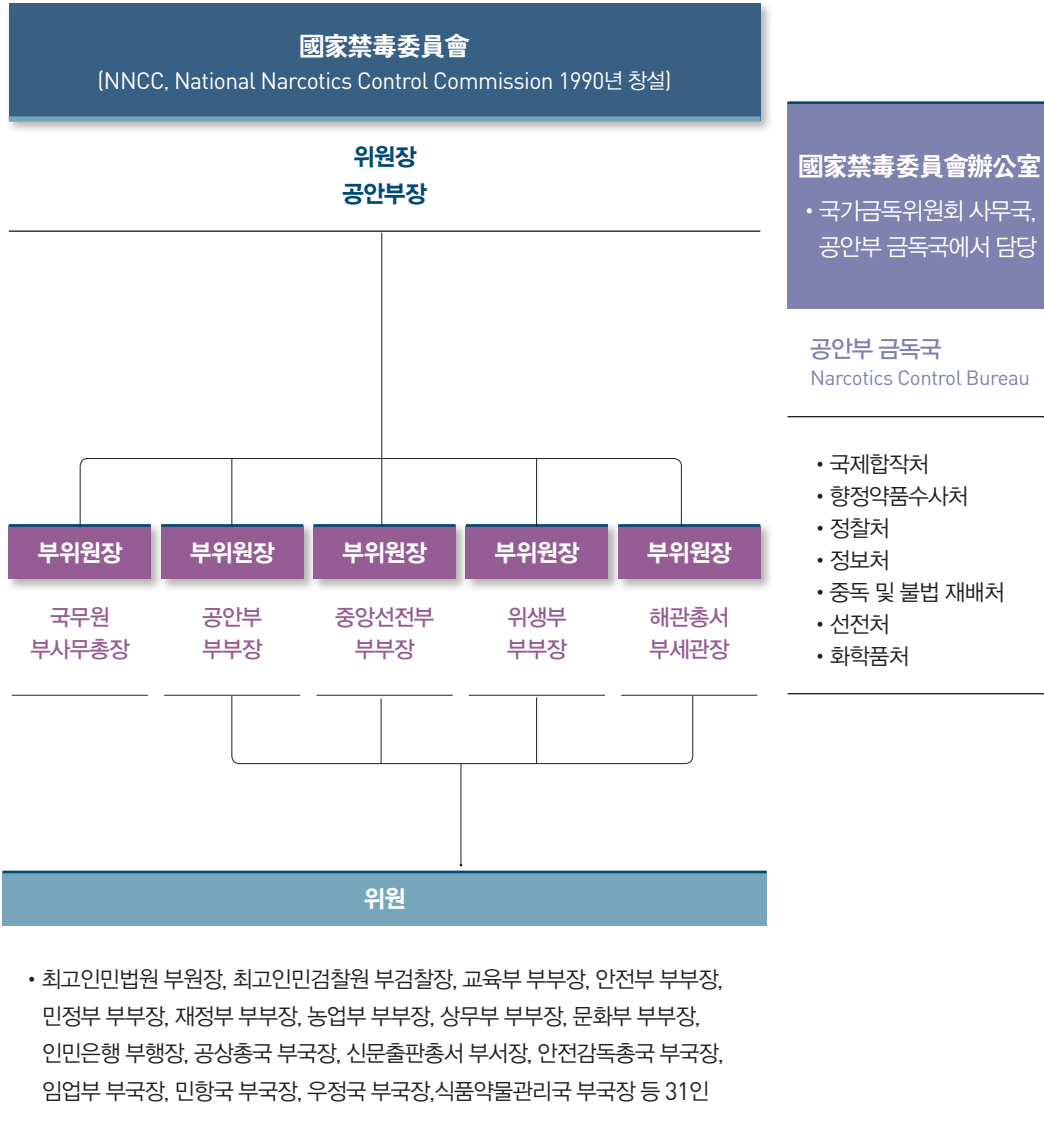
- ▶ 마약류 퇴치전략 등 국가적, 전국적 종합대책 수립 및 정책결정
- ▶ 마약류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나. 국가금독위원회 사무국(禁毒局)

임무

- ▶ 국가금독위원회의 구체적 임무수행을 위해 1998년 신설
- ▶ 금독국 산하에 국제합작처, 향정약품수사처, 경찰처, 정보처, 중독 및 불법재배처, 선전처, 화학품처 등 7개처가 있음

중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3. 일본 마약류 단속체계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구성

- ▶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 ▶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총무부장관, 법무대신, 대장대신, 문부대신, 후생대신, 운수대신
- ▶ 본부원은 외무대신, 통상산업대신, 우정대신, 노동대신, 건설대신, 자치대신

임무

- ▶ 엄정한 처벌 및 효과적 단속을 위한 마약류 관련법규 강화
- ▶ 대국민 홍보·계몽활동 강화
- ▶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 등 처우개선 사항
- ▶ 국제협력 추진
- ▶ 관계법령 개정 및 각종 제도운영을 견실화하고 마약 관련 연구, 개발활동 추진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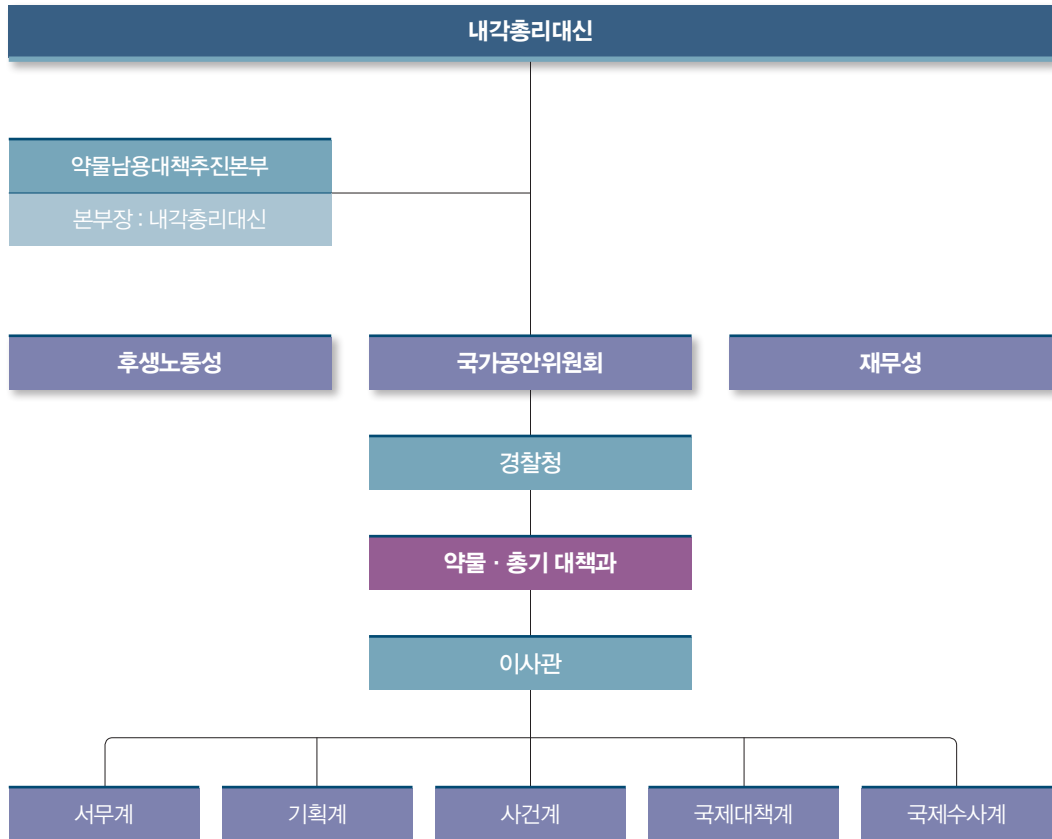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일본 마약류 단속체계도



4. 미국 마약류 단속체계

마약퇴치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s Council on Counter-Narcotics)

구성

- ▶ 의장은 대통령
- ▶ 집행위원장은 국가마약류통제정책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국장
- ▶ 위원은 부통령, 법무부장관, 중앙정보국장, 재무장관, 국방장관, 교통장관, 국무장관, 보건장관, 교육장관, UN대표부 관리 및 예산청장, 국가안보국대통령보좌관, 대통령수석보좌관, 대통령자문위원, 합참의장, 부통령국가안보자문위원

임무

- ▶ 국가마약류퇴치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이행관련 및 마약류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 ▶ 국가마약류퇴치전략 방향 및 종합대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보좌
- ▶ 마약정책수립에 관한 주요 회의체 역할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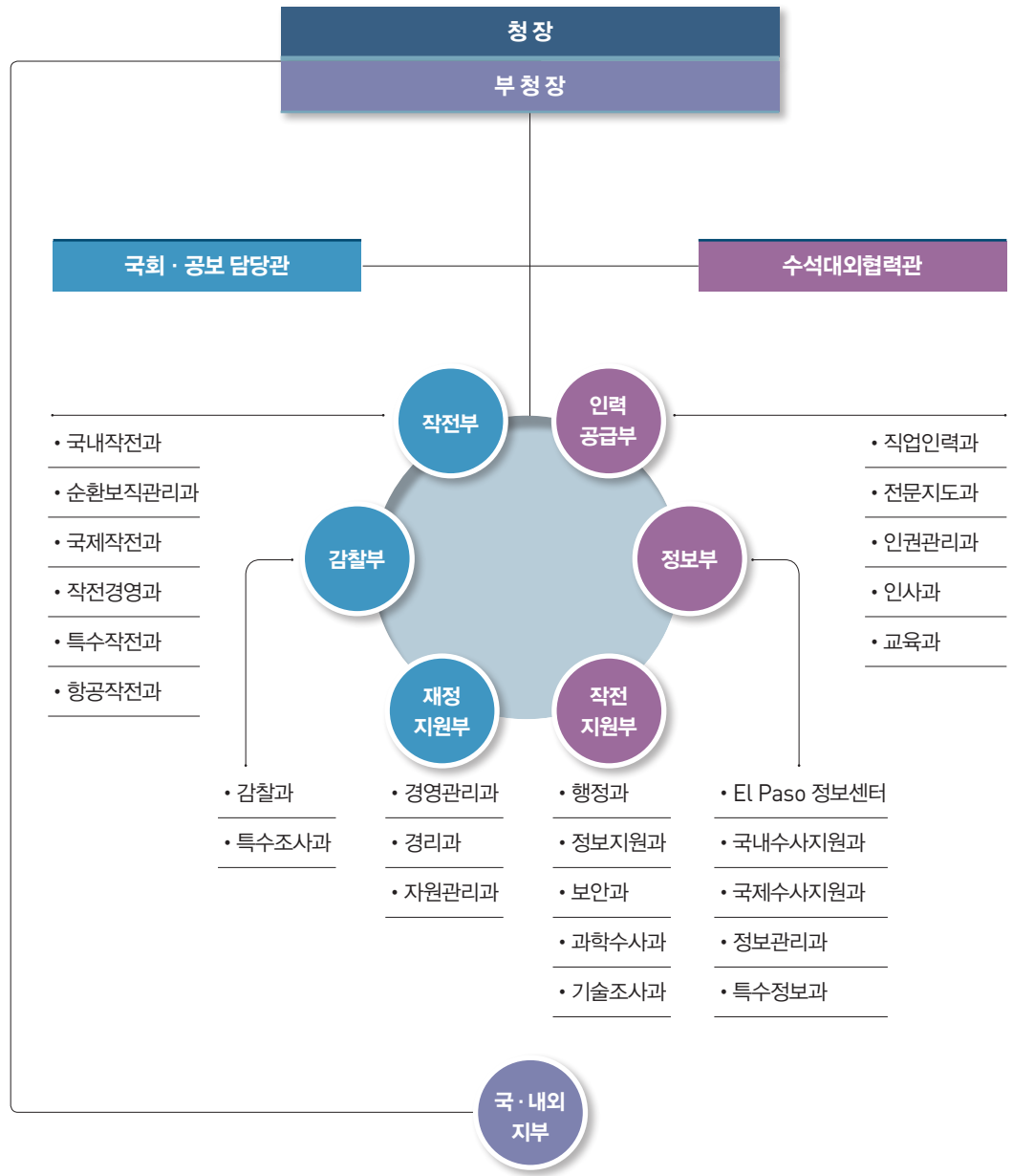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미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미국 마약청(DEA) 조직도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5. 태국 마약류 단속체계

가. 마약류단속위원회 (NCB : Narcotics Control Board)

구성

- ▶ 위원장은 수상
- ▶ 위원은 ONCB 사무총장, 전직장관 및 내각에서 임명한 6명
- ▶ 마약단속청(ONCB)의 사무총장이 집행기능(간사) 담당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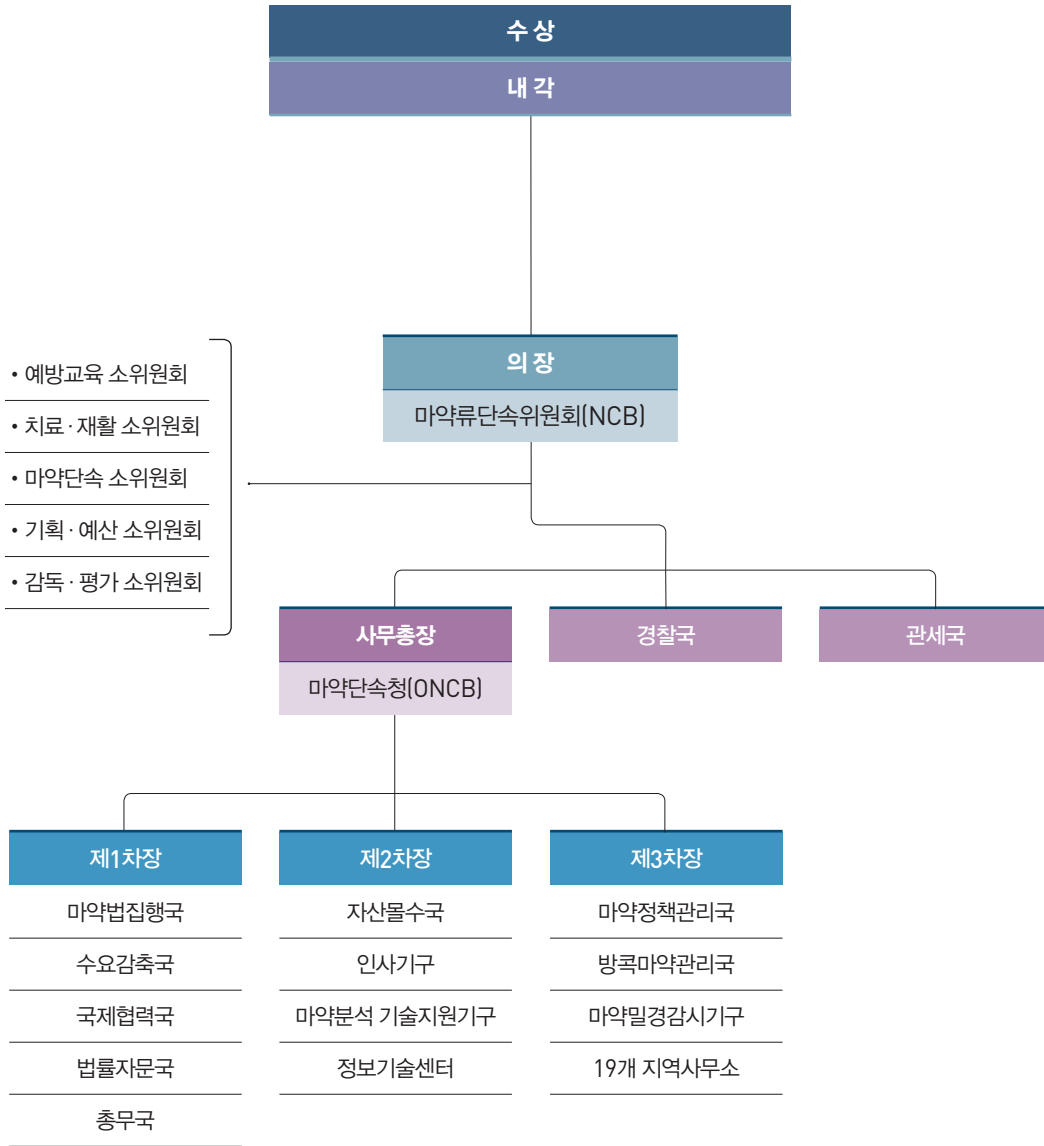
- ▶ 마약류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 ▶ 마약류 퇴치전략 등 종합대책 수립
- ▶ 내각에 권고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나. 마약류단속 5개 소위원회(sub-committee)

마약단속위원회(NCB)의 구체적 임무수행을 위해 설립

- ▶ 기획·예산 소위원회
- ▶ 감독·평가 소위원회
- ▶ 마약류 예방 소위원회
- ▶ 치료·재활 소위원회
- ▶ 마약류 단속 소위원회

태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검찰

PROSECUTION SERVICE

부록Ⅱ

주요국

마약류범죄

동향



제1절 중국

1. 마약류 현황

- ▶ 2012년 중국 당국에 등록된 마약류 남용자는 약 210만 명으로, 그 중 59.3%는 헤로인을, 28.7%는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 2012년 당국에 등록된 향정물질 남용자는 약 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되는 아편류 마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2년에 98건의 유입사태가 적발되어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음
- ▶ 메트암페타민은 주로 미얀마에서 유입되어 대량으로 밀매되는 상황으로 이에 미얀마와의 접경지역인 중국 남부 운남성에서의 법집행 강화가 요구됨
- ▶ 중국은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인접국가들과 마약류 퇴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 단속 현황

- ▶ 2012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132,783명으로 전년에 대하여 약 18.1% 가량 증가하였으며 메트암페타민류 16.2톤, 헤로인 7.3톤을 비롯하여 케타민, 아편, 대마초 등이 압수되었음

- ▶ 2012년 579건의 마약류 밀조 사례가 단속되었고 특히 광둥성 및 사천성 등에서 326개의 소규모 마약 밀조 시설이 적발되었음
- ▶ 2012년 1월부터 9월간 북경 공안당국은 6개의 마약조직을 적발하여 306명을 체포하고 98건의 마약 범죄를 적발하였으며 헤로인 10.1kg을 압수한 바 있음
- ▶ 2012년 9월 호남성에서는 약 800m²에 이르는 대규모 마약밀조 시설을 적발하여 14명을 체포하고 약 218kg의 크리스탈형 메트암페타민 및 약 902kg의 중간 생산물을 압수한 바 있음

부록 표-1 중국의 마약류 압수량

(단위: 톤)

| 마약류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메트암페타민 | 6.2 | 6.6 | 9.9 | 14.3 | 16.2 |
| 헤로인 | 4.3 | 5.8 | 5.3 | 7.1 | 7.3 |
| 아편 | 1.4 | 1.3 | 1.0 | 0.8 | 0.8 |

자료출처 : World Drug Report 2013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제2절 일본

1. 마약류 현황

- ▶ 2012년 일본 당국에 단속된 마약 사범 중 84.2%는 메트암페타민 관련된 사범이고 12.0% 가량은 대마와 관련된 사범임
- ▶ 일본의 조직범죄단체(일명 야쿠자)에게 마약밀매는 주요한 자금원이 되기에 상당 부분의 마약 관련 범죄가 조직범죄단체와 연관되어 있음
- ▶ 종전의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밀반입되던 메트암페타민은 현재 그 유입지가 다변화 되어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밀반입되고 있는데 일본이 국제마약조직의 최종 소비지로 선택하고 있는 원인은 타국에 비하여 비교적 큰 마약시장규모와 자국 내의 높은 밀매가격에 있음
- ▶ 대마초는 메트암페타민 다음으로 빈번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국지적으로 대마초가 밀경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밀반입된 것임
- ▶ 당국은 1995년부터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를 개최하여 국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단(JICA)을 통하여 저개발 국가의 마약류 퇴치를 위하여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2. 단속 현황

- ▶ 201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2,962명으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으며 메트암페타민 관련 사범은 10,917명으로 약 6% 대마초 관련사범은 3% 감소하였음
- ▶ 2013년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은 834kg으로 최근 5년내에 최대의 압수량을 나타내었고 이는 1956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압수량으로 추산됨
- ▶ 메트암페타민 밀반입으로 단속된 외국인은 대부분 이란인 또는 아프리카인들로 2013년 각 21명, 19명이 적발됨

부록 표-2 일본의 마약사범 단속현황

(단위: 명)

| 마약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메트암페타민 | 11,655 | 11,999 | 11,852 | 11,577 | 10,917 |
| 대마초 | 2,920 | 2,216 | 1,648 | 1,603 | 1,559 |
| 코카인 | 116 | 105 | 82 | 61 | 45 |
| 헤로인 | 15 | 17 | 18 | 30 | 20 |

[자료출처: 일본경찰청 제공 Country Report]

부록 표-3 일본의 마약류별 압수량

(단위: kg)

| 마약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결정형) 메트암페타민 | 356.3 | 305.5 | 338.8 | 348.5 | 834.9 |
| 대마초 | 195.1 | 144.9 | 134.7 | 301.8 | 177.9 |
| 대마수지 | 17.2 | 8.8 | 28.0 | 41.7 | 1.1 |
| 코카인 | 11.3 | 6.9 | 28.7 | 6.6 | 98.8 |
| 헤로인 | 1.2 | 0.3 | 3.5 | 0.1 | 0.2 |

[자료출처: 일본경찰청 제공 Country Report]

제3절 미국

1. 마약류 현황

- ▶ 2013년 현재 미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한 합법 마약류 남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 코카인은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로써 크랙(Crack) 형태로 미국 내 거의 모든 도시에서 남용되는 상황이지만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 코카인은 주로 멕시코 또는 남미의 코카 생산지에서 밀반입되고 있고 마약밀매조직인 카르텔은 비행기, 선박, 잠수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입되고 있음
- ▶ 대마초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2014년 1월 콜로라도주에서는 기호용 대마 판매와 소지 및 흡연을 합법화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됨
- ▶ 메트암페타민은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밀매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자국 내의 밀조는 원료물질 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크게 감소하고 있음

2. 단속 현황

- ▶ 미국의 마약단속관련 연방기관에는 마약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등이 있으며, 특히 마약청은 (2013년 현재) 자국내에 21개 지역본부 및 해외 67개국 86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제마약단속회의(IDECC)’ 개최를 통해 마약류 범죄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적 마약범죄 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부록 표-4 미국의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검거자수 | 28,555 | 31,701 | 30,922 | 32,408 | 30,476 |

[자료출처: 미마약청 홈페이지]

부록 표-5 미국의 마약류 압수량 (단위: kg)

| 구분 \ 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코카인 | 50,474 | 50,819 | 30,058 | 33,272 | 36,001 |
| 대마초 | 662,145 | 671,557 | 723,716 | 573,195 | 354,023 |
| 메트암페타민 | 1,519 | 2,012 | 2,187 | 2,481 | 3,898 |

[자료출처: 미마약청 홈페이지]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제4절 태국

1. 마약류 현황

- ▶ 2013년 치료 재활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 수는 484,610명으로 2012년 561,224명에 비하여 약 14% 가량 감소하였음
- ▶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이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이지만 최근 크리스털 메트암페타민(일명 ICE)의 남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 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자국 내에서 대량의 마약 밀조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헤로인과 메트암페타민이 꾸준히 유입되어 자체적으로 소비되거나 제3국으로 밀매되고 있는 실정임
- ▶ 1999년 이후 헤로인은 자국 내에서 밀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귀비는 태국 북부 지역인 치앙마이에서 소규모로 밀경작되는 수준으로 더 이상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지만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유입되는 헤로인이 태국을 경유지로 하여 국제 시장에 밀매되는 상황이 문제시 되고 있음
- ▶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대마초의 대부분은 인접국가에서 유입되어 대부분 제3국으로 반출되고 소량이 자체 소비되고 있음

2. 단속 현황

- ▶ 2011년 8월 태국 여왕의 마약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는 마약 문제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 결집을 기조로 하는 마약 통제 정책을 발표하였음
- ▶ 2009년 3월 마약류 퇴치를 위한 엄중한 조치를 선언한 태국정부는 국내 마약류 통제 및 감축을 위한 '5개 울타리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 국경지역 마약류 밀수 감시강화 및 밀거래 예방
 - 지역공동체 내 마약류 면역강화 활동
 - 사회 내 마약류 폐해 등 부정적 요소 제거 및 질서 통합 강화
 - 마약류로부터의 학교 내 청소년 보호
 - 가정 내 마약류 면역강화를 통한 사회 기초구성원 형성
- ▶ 2013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67,766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21% 줄어들었으나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부록 표-6 태국의 마약사범 단속현황

| 분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범죄건수(건) | 174,509 | 181,981 | 233,024 | 199,699 | 158,174 |
| 검거자수(명) | 188,803 | 196,756 | 248,128 | 212,667 | 167,766 |

[자료출처 : 태국 마약청 제공 Country Report]

부록 표-7 태국의 마약류별 압수량

(단위 : kg)

| 마약류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야버(단위:백만정) | 27.4 | 54.1 | 55 | 95.8 | 108.9 |
| (결정형)메트암페타민 | 213 | 705 | 1,241 | 1,611 | 1,265 |
| 헤로인 | 143 | 138 | 548 | 127 | 749 |
| 대마초 | 18,089 | 18,023 | 12,914 | 24,524 | 20,462 |
| 코카인 | 9 | 31 | 32 | 18 | 63 |

[자료출처 : 태국 마약청 제공 Country Report]



총괄

대검찰청 강력부장 윤갑근

기획

대검찰청 마약과장 김후균

편집

대검찰청 마약과 정병수 김용권
 김태현 박기영
 김현수 김현송
 임호성 박재열
 박희조 손형수
 박상구 안민석
 한태환 홍승표

2013 마약류 범죄백서

2014년 6월 30일 인쇄

2014년 6월 30일 발행

발행 : 대검찰청 ☎ 02)3480-2292-5

인쇄 : 남일문화주식회사 ☎ 02)720-1511-3

